



1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제119호·삼국시대) 2 춘궁리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332호·고려시대) 3 관음보살(고려시대) 4 해외 옥선에서 구입해 처음 공개되는 신중탱화(18세기 중엽)

## 불교 조각실 · 회화실 · 금속공예실은 시공 초월한 ‘법당’

국립중앙박물관 10월 28일 개관...미리 만나본 불교문화재

10월 28일 서울의 한복판 용산이 민족의 역사와 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1997년 시작된 8년간의 대역사(大役事)와 경복궁 전시를 중단한 1년여의 휴지기를 끝내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연다. 9만2936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견무)은 연건평 4만616평, 건물 전시면적만 8101평으로 건물면적만 따지면 세계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관람코스 길이가 4km, 1만1000여점의 전시 유물을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시간이 된다.

불심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불교문화재가 집중돼 있는 곳은 미술1관의 불교 조각실(3층)과 미술관의 불교회화실(2층), 그리고 금속공예실이다. 불교조각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춘궁리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332호)으로 불리는 고려시대 철불이 눈에 들어온다. 경기도 광주군 등부면 하사장리 절터에서 발견된 불상으로 무게가 6.2톤이나 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철불이다. 그 왼편으로는 충남 서산 운산면에서 출토된 철조불좌상이 자리하고 있다. 8세기 작으로 백호와

관람코스 4km 11시간 소요, 세계 여섯번째 규모 반가사유상·천흥사종 등 1만 1000여점 유물 전시 진도 6 규모 내진 시설·지상 수장고 등 안전성 최상

국립중앙박물관은 건물길이가 404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에 형상마저 전통성곽을 닮아 거대한 ‘요새’를 연상시킨다.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요새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것만 같은 믿음을 준다. 국내박물관 건축사상 최고 수준인 내진(진도6 대비) 기능을 더하여, 땅의 진동이나 변형을 흡수하는 면진(免震) 장치, 공기정화 시설과 대기오염 감시장치 등 특수설비시스템까지 갖추었으니 그 믿음이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수장고를 지하가 아닌 지상에 품으로써 환기문이나 수재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또 지반을 3.5m 성토해 한강의 범람에도 대비했다. 이같은 외형 못지않게 전시품도 알차다. 소장 유물의 질을 지적여부로 판단하는 ‘무식의 소치’를 범하지 않으면, 상설전시실에는 총 59건의 국보와 79건의 보물, 중요민속자료 1건이나 되는 많은 보물과 국보가 전시돼 있다. 국보 59건 가운데 18건, 보물 79건 가운데 27건이 불교문화재여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조상의

양손은 간데없지만 향마족지인을 한듯한 팔의 자세로 보아 여지없는 석가모니상이다. 면진대 위에 놓인 다른 불상들과는 달리 이 석가모니상만은 장엄을 위해 단정까지 갖춰진 불단 위에 정성껏 모셨다. 답집은 부석사 무량수전의 것을 따랐는데, 단청은 돼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관람객이 단정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곳은 단연 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 전시공간이다. 약 5m×8m 넓이의 독립 공간에 단독 전시된 반가사유상은 캄캄한 안쪽 속에서 벽면을 타고 조용하게 흘러내리는 몇 줄기 조명을 받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인다. 불화실은 두 층이 트인 전시공간을 확보해 커다란 괘불도 걸어놓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개관에 즈음해 일본 나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두 점이 대어 전시된다. 금속공예실에서는 ‘청년4년이 새겨진 종’(보물 제1166호)과 천흥사종(국보 제280호)을 비롯해 같은 사터동탑사리기(보물 제1359호) 등 화려한 사리기들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범종은 종각을 만들어



‘역사의 길’에서 서 있는 고달사지장사자석등(보물 제282호·고려시대)



금속공예실의 성가산 천흥사동종(국보 제280호·고려시대)

걸지 않고 바닥에 받침을 괴고 그 위에 올려놓는 방법을 취했다. 종각이 전시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용천 전시팀장은 “지금으로서는 종소리를 들려줄 수 없어 아쉽다”며 “종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 중”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야외에는 보신각종(보물 제2호)을 비롯해 11건의 석탑과 부도·석등이 전시돼 있다. 경천사10층석탑(국보 제86호)은 박물관 실내 역사길에서 만날 수 있다. 글=박익순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 인터뷰 이견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지난해 3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해 1년 6개월여 동안 박물관 이전 및 개관에 온 힘을 쏟아 부은 이견무 관장을 10월 19일 만났다. 이 관장은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다. 불자 관람객에 불교문화재에 대한 애정도 읽을 수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 가장 힘들었던 점은 - 유물 이전이 가장 어려웠다. 수만 점의 유물을 이전하는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전했다. 직원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또 하나는 미군 헬기장 문제였다. 금년 5월 1일까지도 헬기장이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마 개관 못했을 것이다.
- ▷ 전시에 특별히 유념한 부분이 있다면 -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조명이다. 조명을 잘해야 작품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진열장 안에는 광섬유 조명을 사용해 세밀한 조명이 가능케 했다. 광섬유 조명은 열을 배제하고 빛만 들어가도록 자외선을 거르는 특수 필터가 장착돼 유물 손상을 최소화했다.
- ▷ 불교문화재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 성보박물관이나 국립경주박물관과 비교해보면 그렇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불교가 지배해온 한국에서 불교문화재를 따로 한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본다. 도자공예나 회화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도 불교정서나 사상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 ▷ 성보박물관과 교류하면 풍성한 전시가 되지 않을까 - 현재로서도 월인석보(보물 제745호·수타사 소장),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화엄사 소장), 김경희가 쓴 해인사 중건상량문 등 사찰 성보박물관으로부터 빌려온 유물들이 있으니 교류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특별전이나 상설전시 교류 등을 시행해볼 생각이다.

- 불교조각 감상 요령
  - 반드시 전시된 순서를 따라 감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감상할 때는 양식이나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 공부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마음에 드는 불상을 찾아본다.
  - 불상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며 시선을 마주 한다.
  - 불상을 조성한 이들의 마음가짐을 떠올려 본다.
  - 자주 그 불상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한다.

##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한국 파동 병의연구원 원장님의 놀라운 의통과 투시능력으로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해결 해 드립니다.

- 첫째,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예고없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지은 전생의 카르마(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 둘째,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의 악기(惡氣)로 누적된 파장으로 인해 자기 앞에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이 나타난다.
- 치유법 :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 과학적이며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한다.

빙의(憑依) 확인 - 영가와와의 대화 - 영가천도 환자 스스로 자기 몸속에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세의 장애인지 확인 - 상담 - 현세의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 해결한다.

##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서 망황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되는 것일까?
- 병도 없이 몸이 아프며 백방치료해도 왜 효과가 없을까?
- 집안에 불화와 우환은 왜 끊이지 않을까?
- 원인을 불화와 사업실책, 직장실책, 부부실책, 집안이 편치 못한 것은 왜 그러할까?
- 묘터와 수맥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는가?
-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 사용으로 피해가 없는가?
- 원인을 불임시에는 태아영가의 장애였는지 의심해 봐야한다.

여러번의 종교의식(천도나 제령)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분 상담

### 빙의(憑依)로 나타나는 증상

내 몸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나를 조절할 수 없고 누군가 내 머릿속에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며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 환청, 환시, 우울증, 강박증세, 심리불안, 조울증,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등 갖가지 증상을 호소한다.

한국 파동 병의연구원  
053)767-0036  
053)652-3300